

전매광장

박규호

광주문화재단 예술상상본부장



광주시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광주문화재단 내에 '문화예술교육팀'이 설치돼 있고 그 팀이 말하자면 '광주광역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실질적 책임 부서란 사실까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겠지요. 사실 광주광역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2009년에 지정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2011년 출범한 광주문화재단보다 오래된 조직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공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광주광역시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교육'이란 말이 입에 착착 달라붙지는 않지요. 2005년에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에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 지역 등에 관계 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지요. 말하자면 우리 국민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 받을 권리에 더해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광주문화예술교육센터도 법률 취지에 맞춰

광주문화예술교육센터를 아시나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단체 공모를 통한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공모사업인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광주리', 거점형 창의예술학교,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이 있고, 기획사업으로 '경제재와 재봉틀'을 필두로 한 생애전환형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작업, 축제사업으로는 아트날라리, 어린이목수축제 등을 운영합니다. 여기에 인터넷 뉴스레터도 매일 발간하고, 연말쯤이면 문화예술교육포럼도 개최합니다. 너무 많은 업무에 한 달, 1년이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문화예술교육'이라 하면 음악·미술·연극 교육과는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로 꼽히는 강원도의 이선철 감사꽃스튜디오 대표의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포럼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예술교육, 문화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어떻게 불러도 같은 의미일 것"이라고 해설한 바 있습니다.

저는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적, 인문학적, 인권적 가치를 알리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 인간의 가치를 강조하는 세상, 예술과 인간의 삶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예술을 활용하는 방식의 교육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술적 기능만을 가르치는 교육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인식하게 하고, 창의성과 상상력을 길러주며, 사회를 바라보는 바른 눈을 길러줍니다. 세상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니 말하고, 그리고 표현하는 일에 나설 수 있습니다. 예술 교육을 통해 주체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을 만드는 일이 됩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주 인권 도시이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꿈꾸는 광주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광주문화예술교

육센터가 독립적 건물을 갖지 못한 것은 광주로서는 조금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사무실 한 칸, 작은 강당 한 칸이 전부입니다. 그래도 건물 외벽에 큼지막하게 '광주문화예술교육센터'라고 간판을 걸었습니다.

독립적 교육공간 없어 아쉬움

전북 전주에는 오래된 공장을 수선해 만든 팔복예술공장 꿈꾸는 예술터란 곳이 있습니다. 유서 깊은 오디오 테이프 공장을 그대로 활용해 전시, 공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넓고 쾌적한 북카페도 눈길을 끕니다. 전주문화재단이 이곳을 문화예술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주군문화재단이 입주해 있는 '북합문화공간 누에'는 옛 잠사공장을 활용한 곳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활동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 가면 '문화제조창 C'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설 뻔했던 연초제조장을 살려 지난해 문을 연 문화공간입니다. 문화체험시설과 공예클러스터, 상업시설에 일부 공간은 청주시정임시청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광주에도 연초제조창이 있습니다. 청주를 벤치마킹할 만합니다. 건물도 크고 운동장까지 있으니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사이 광주에 복합쇼핑몰을 서로 짓겠다고 경쟁인데요. 그 공간의 한 영역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요. 문화적 재생을 추진 중인 상무소각장도 좋고, 리모델링 논의가 뜨거워 임동 전남방직 자리도 좋겠습니다. 어디에도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교육센터 간판을 제대로 달아보고 싶습니다.

에세이

박덕은

문학박사·화가·전 전남대 교수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멍멍 멍 멍 짖는 소리를 곱겹의 꽃잎으로 포개듯 한 동백꽃이 이쁘다. 입맛 다시며 비린 바람을 발라먹고 햇살까지 한입에 받아먹는 동백꽃이 탐스럽다. '노랑이' 하고 부르며 금방이라도 쪼르르 달려들 듯 동백꽃은 나만 바라보고 있다.

어린 시절 고향집에서 키운 개 이름이 노랑이다. 공부하느라 마루에서 공부대고 있으면, 노랑이는 심심했는지 개밥그릇을 가지고 놀았다. 나는 구구단을 외우느라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노랑이는 이빨로 구구단을 잘도 외우며 개밥그릇 돌려를 자근자근 씹으면서 놀고 있었다. 덧셈이나 곱셈은 식은 죽 먹기라는 듯 노랑이는 앞날로 제 밥그릇을 차고 퉁퉁거리다가 물어뜯다가 으르렁거리며 밥그릇 산수 계산을 하면서 놀고 있

동백꽃과 노랑이

었다. 그렇게 노랑이가 밥그릇 놀이를 하는 날에는 유독 개밥그릇에 이빨 자국이 촘촘히 나 있어 얼마나 열심히 산수 공부를 했는지 알 수 있었다. 노랑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였을까. 야기돼지가 노랑이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노랑이는 밥그릇 공부를 뒤로한 채 여자친구인 야기돼지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왔다. 매우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노랑이는 금장식 의관을 차려입은 듯 금빛 노을자락을 길게 늘어뜨리며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깜짝 놀란 분꽃들이 뺨뺨레를 붉혀 환호해 주었다.

하루는 나와 노랑이와 야기돼지가 함께 놀러 나갔다. 밭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우리를 보더니 깔깔깔 웃으며 말을 건넸다. "노랑이와 돼지를 결혼시킬 거냐?"

나는 부끄러워 도랑 쪽으로 도망갔다. 창피한 발이 공중을 점령한 바람을 깨뜨리며 총총총 앞서갔다. 아주머니들의 짓웃음은 웃음이 계속 뒤따라와 말을 걸어와도 돌아보지 않았다.

노랑이와 나는 야기돼지와 함께한 이후로 더 친해졌다. 감정을 섞고 말을 섞고 일상을 섞으면서 친해져 갔다. 노랑이 앞에서는 굳이 감정의 앞면과 뒷면을 다르게 보일 필요가 없었다. 재채기처럼 튀어나온 울음을 일방적으로 편들

어도 노랑이는 나를 위로해 주었다. 울음의 발신지가 어딘지 묻지 않고 내 곁을 묵묵히 지켜 주었다.

어느 날, 쇠죽을 끓이기 위해 불을 때고 있는데, 노랑이가 마당 여기저기를 손살같이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집을 나가 버렸다. 노랑이가 쥐약을 먹었는가 싶어 걱정이 되었다. 다음날 나는 엄마한데 야간맛이 늘 울던 장소인 대밭으로 갔다. 놀랍게도 그곳에 노랑이가 쓰러져 있었다. 대나무만 그 곁에서 범람하는 속울음을 어찌지 못해 땀만따 목을 꺾으며 울고 있었다. 나는 노랑이를 끌어안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 끼어끼어 울었다. 울음이 고인 곳마다 노랑이와의 추억이 있었고, 나는 그 추억 근처를 서성거렸지만 어디에서도 노랑이를 만날 수 없었다. 노랑이를 뒷산 동백나무 밑에 묻으면서 11살의 슬픔도 함께 묻었다.

눈이 내린다. 눈발을 뛰어다니던 노랑이처럼 가볍게 제 몸을 가지 끝에 띄우는 동백꽃. 꼬리 흔들며 반가워하는 꽃잎이 붉다. 희미한 인기척에도 달려나오는 노랑이처럼 겨울 속에서 가장 먼저 눈 뜬 동백꽃이 사랑스럽다. 언젠가 내 생의 심장이 멈추는 날, 나도 노랑이처럼 동백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도로교통법 개정,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립

한다.

최근 5년간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로 2만여 명의 사상자가 기록된 바 있다. 우리 모두 이번 개정안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우

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를 줄임과 동시에 보행자 중심의 올바른 교통문화를 확립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현지 진도경찰서 읍내파출소 경장

1989년 6월 29일 창간		<b>전남매일</b>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b>박철홍</b>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b>김성남</b>		편집국장 <b>姜聲秀</b>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월간국 (062) 720-1007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사업국 (062) 720-1011, 1099
사회부 (062) 720-1050	기획탐사부 (062) 720-1045-46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2부 (062) 720-1043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chol.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전변차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설

또 불능 예고... '실력광주' 복원해야

수능 6월 모의평가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능이라고 한 지난해 수능 난이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광주시교육청이 실재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6월 모평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등 모든 영역이 어렵게 출제돼 지역 수험생들을 곤혹스럽게 했다는 평가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진로진학지원단 진학분석팀 주관으로 진행된 실재점 분석 결과 국어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149점으로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어렵게 출제됐고, 난도가 높은 문항이 포함돼 채점 난이도는 훨씬 컸을 것이라 지적이 나왔다. 수학교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됐지만 전반적으로 풀이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준킬러 문항이 다수 출제돼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것으로 봤다. 영어의 경우 지난해 수능(1등급 비율 6.25%)보다 더 어렵게 출제돼 90점 이상인 1등급 비율이 5.74%로 감소했다. 올해 수능에서도 영어가 어렵게 출제된다면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 우려다. 사회와 과학 탐

구영역도 쉽지 않아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모평과 수능시험이 치러지면 지역 관계 당국의 분석 평가와 결과가 나오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 지, 또 그에 따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계량화돼 알려진 게 없다. 불능이란 말은 썩 들 어가고 불능이 계속 유지되거나 더 지독한 불능이 다가온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력향상 방안은 무엇인가. 추락한 '실력광주'의 회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직선 4기 광주교육청은 지역 학생들의 불능 고민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모평과 수능 체점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어느 점수대에서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지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에선 기대 낭망이다. 교육 당국은 아울러 경쟁력 있는 지역 우수 학생들이 타 지역 경쟁력 있는 고교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회전 시 '일단멈춤' 선택 아닌 의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된 내용이 골자다. 최근 5년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3,222건이며 이 사고로 총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시행 첫날 경찰은 횡단보도 진입 차량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 중심의 단속을 벌였다. 경찰들의 단속에 운전자들은 대체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개정된 법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빨간 불이 켜진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없어도 3~4초간 정지하면서 주변 눈치를 살피는다면, 정차한 차량에 경적을 울리며 앞 차선으로 변경한 후 추월하는 차량도 있었다. 일시 정지하지 않고 여느 때처럼 우회전하는 차량은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핀 뒤 수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가 보행자가 '동행하는 때'에서 '동행하려고 하는 때'로 확대됐기 때문이

다.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 살펴야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위반시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어린이보호구역은 2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들은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 위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답답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개정된 법은 사람이 손을 흔들거나, 뛰어오거나, 주위를 살피는 등 건너는 신호를 운전자가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포인트다. 신호 관계없이 보행자 확인이 핵심이다. 개정된 법으로 인해 교통체증 등 혼선이 예상되기도 한다. 하지만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보행자 중심의 운전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성숙한 모습으로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지키려는 모습이 필요하다.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한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영암 KIC 활용 극대화 대책 필요하다

기지수첩



임채민

사회부 기자

위해 야심 차게 내놓은 '고성능·튜닝 중심의 미래형 자동차밸리 조성사업'이다. 지난 2013년 첫발을 댄 이 사업은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418억 원) 등 현재까지 모두 1,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전남도는 오는 2028년까지 모두 2,605억 원을 들여 R&D시설을 비롯한 생산기반 구축을 끝내고 기업유치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유치된 기업은 6곳에 그치고 있고, 하수도 공사 등 기반시설 조성마저 더딘 상황이라서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전남도가 전직하고 있는 튜닝산업은 무엇보다 일부 매니아층의 관심사에 그칠 수 있는데 여러 규제에 발목 잡힐 우려도 크다. 내연기관 튜닝산업으로는 경쟁력과 수익성이 모두 떨어진다. 현장의 회의적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KIC 활성화를 두고 관련 전문가들은 전기·수소차 시대에 대한 적극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고속자동차 주행능력 테스트와 카트대회, 운전 주체의 변경 등도 지적한다. 미래자동차 시대에 맞는 차별화 전략과 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승산이 있다는 뜻으로,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전남만이 가진 자산인 KIC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거듭 주문한다. 그것이 현실만 잡아먹는 거대 시설물이란 오명을 떨치는 길이다.

영암 코리아인태너셔널서킷(KIC)은 지난 2013년 F1 머신의 질주자 멈춘 후 지금까지 애물단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남도가 그간 서킷 활성화를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백악이 무효인 상황. 카트경주장, 오토캠핑장, 제2서킷 등이 대표적 사업들로, 경주장 건설부터 부대시설 확충까지 지난 10여 년 간 KIC에 쏟아부은 예산만도 9,000억 원이 넘는다.

여기에 되풀이되는 적자 운영과 시설 관리도 엉망인 데다 F1대회 팀원들이 머물렀던 팀 빌딩을 유스호스텔로, 패독을 직업체험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들도 줄줄이 퇴짜를 맞는 등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게 KIC의 오늘이다.

더 걱정이 되는 건 전남도가 KIC 활성화를